

[사회]

正論直筆 햇불은 영원할 것입니다

故 김종태 前 광주일보 회장님을 떠나 보내며... 최 승 호

오늘 우리는 참으로 멋진 우리의 어른 한 분을 저 하늘로 보내드려야 하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김종태 회장님. 정병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겁니까. 당신의 그 큰 발자취, 그 깊은 사랑을 어찌 감당하랴고 이렇듯 흥연히 가시는 겁니까.

산하의 무게가 가라앉고 수목들도 빛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급방로 거리는 어제의 그 거리가 아닙니다. 회장님의 빈 자리를 채울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사람들은 말을 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미래를 물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가꿔나가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어리석은 다름, 풍매한 답답함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지람을 듣고 누구로부터 깨우침을 얻어야 할까요.

회장님은 필연코 호남을 대표하는 언론인이셨습니다. 척박한 땅에 언론의 정도를 굳게 지키시고 호남 대표신문 광주일보를 50년 나이에의 거목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언론의 존망을 가늠기 어려운 독재와 감시 속에서, 세기말 아시아 각국을 돌린 경제난 속에서도 결코 언론인의 기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센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회장님이 계셨기에 광주일은 오늘,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 정문직필의 햇불을 꺼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님은 참된 문화인이셨습니다. 국문학도이신 당신은 늘 동서의 고전을 가까이 하신 교양인이셨습니다. 일찍이 예술 꿈나무들을 발굴, 육성하는 호남예술제를 개최하여 호남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예술 등용문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신 것은 오늘날 광주시가 대한민국 문화수도를 자임할 수 있게 한 계인이셨습니다. 회장님은 쾌거 넘치는 체육인이셨습니다. 70년대 산악연맹 전담회장으로 지역 알파니즘의 토대를 놓으셨고 80년대에 이르러까지 후배들을 이끌고 신촌 명산 연속 등반을 해오신 것은 너무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장님의 일생은 야구와 함께 온 일생이었습니다. 교묘야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그대로 한국 현대야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또한 세계시민이었습니다. 국제 신문인 협회(IPI) 이사, 국제 신문 발행인 협회(FIEJ) 본부이사를 역임하시는 20여 년 동안 각종 대표 언론인들과 폭넓게 교류하셨고 수많은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한국과 전라도의 아름다움을 전파하셨습니다. 90년대 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크 공화국에 한글학교를 설립하신 일은 영원한 업적으로 빛날 것입니다. 회장님은 병상에서도 늘 광주와 전라도가 잘되는 길을 말씀하셨고 후배들을 도리어 격려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 놓으소서. 천상에서 편히 휴식하십시오. 광주일보와 후배들 모두는 회장님의 그 굳은 뜻 길이 이어가리라.

<전 광주일보 사장>

故 김종태 前회장의 발자취

지역사회 발전 남다른 열정 평생 학구적인 자세 '귀감'

고(故) 김종태 전 광주일보 회장은 광주·전남 지역 발전과 문화발달에 평생 바쳐온 큰 인물이었다. 먼저 고인은 언론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75년 광주일보 전신인 전남일보와 전일방송 사장에 취임한 후 1988년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1992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를 맡으며 국내 언론발전에 기여했다. 또 1974년 국제언론인협회(IPI) 이사를 시작으로 국제 언론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고인은 학구적인 자세를 잃지 않아 후대의 귀감이 됐다.

언론사의 빠듯한 생활 중에도 건강을 잃기 전까지 매일 아침 1~2시간씩 영어회화를 생활화해 능숙한 영어를 구사했고, 일본어도 수준급이었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의 광주 방문시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눈 김 전 회장을 지켜 본 릴리 전 대사의 통역이 "(김 전 회장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유학했느냐"고 물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한국 야구를 비롯한 체육과 문화, 지역인재육성 분야에서도 고인의 업적을 빼놓을 수 없다. 1971년 전남야구협회 부회장에 취임한 김 전 회장은 틈나는 대로 무등야구장과 지역 초·중·고교 야구경기장에 들려 세박을 찾아내고 격려했다. 이 같은 그의 노력은 1970년대 중반 호남야구 흥부와 프로야구 태동, 지역출신 선수의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로 꽃을 피웠다.

선진 별세 이후에는 남평문화재단을 설립,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에도 남다른 정열을 기울였다.

고인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성격이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기아자동차 생산라인의 광주조치와 광주은행 명칭 보전 등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는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는 애환을 발휘했다.

이처럼 지역사회발전에 큰 자취를 남긴 고인은 국민훈장 동백장, 1995년 전남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아버지 죽음부른 온라인 게임

모녀 갈등으로 끊어진 전선 연결하다 감전사

온라인 게임에 빠진 딸과 이를 제지하는 어머니의 갈등이 아버지의 죽음을 부른 참변으로 이어졌다.

지난 7일 새벽 0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S아파트에 사는 박모(46·인테리어업)씨가 집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끊어진 정수기 전선 앞에서 발견됐고, 손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감전사(感電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의 죽음은 최근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빠져 화염을 소홀히 하고 있는 딸(17·D이고 1년)과 이를 질책하던 어머니(45)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의 부인은 지난 6일 오후 3시에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오후 근무를 위해 집을 나가면서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는 딸을 나무란 뒤, 본체와 모니터 선을 모두 절단한 뒤 컴퓨터를 거실에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딸은 거실에 있는 정수기의 콘센트 연결 부위를 끊어버리며 화풍이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가족들의 진술로 미루어 모녀기간의 감정 싸움으로 끊어진 정수기의 전선을 연결하던 아버지 박씨가 전기에 감전돼 숨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박씨의 사인을 감전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콘센트에 코드가 연결된 채 감전되더라도 순간 과부하가 걸려 누전 차단기가 내려지면서 전원 공급이 끊기게 되지만, 당시 아파트 누전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편 가정용 220V 전력에서는 평균 136mA(미터 암페어·초당 전력의 세기)의 전류는 호흡 및 근육 마비, 50mA는 심장마비를 가져온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바람의 나라=2D SD캐릭터(머리와 몸의 비율이 1:1인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게임물로 지난 1996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초 유료게임으로 월 2만4천원의 정액제를 내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무료 회원제로 바뀌며 동시 접속자 수가 13만 명을 돌파하는 등 청소년회원 수가 증가했다.

"딱한 파산자 빚 전액 면책해줘야"

대법원 결정

'카드 돌려막기' 등 면책 결정 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파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법원이 빚을 면책해 주기로 했다.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책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개인파산자에게 채무의 일부를 갚도록 할 경우 다시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도록 재판면책의 기준을 제시한 첫 결정으로 향후 파산 선고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

에 소독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잔존 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빚을 지며 카드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일삼은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신용카드에 이차 변제와 모친의 질병 치료비 인출 등에 사용한 점을 감안해 채무의 70% 면책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예상합격선 높아질 듯

2007학년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문검사 시험(MEET&DEET)의 예상합격선은 의학의 경우에는 155점 이상, 치의학은 161점 이상으로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전문기관인 PMS는 올해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합격이 가능한 영역별 표준점수 총점을 의학의 경우 155점 이상, 치의학은 161점 이상으로 전망했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인 MEET&DEET 개별 성적은 최근 발표됐으며 16일 가천·건국·경북·경상·전북대 등 10개 의학전문대학원과 경북·경희·서울대·전북대 등 6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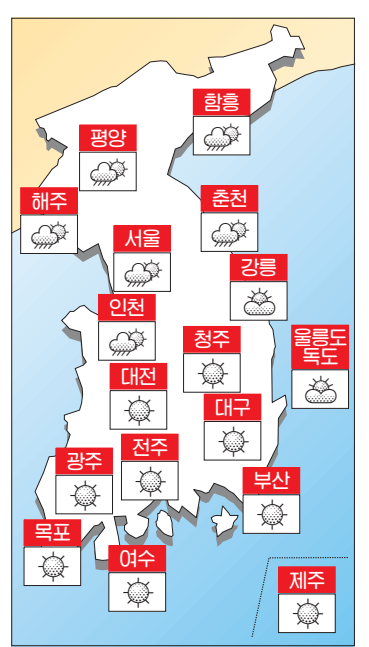
한글날 '감기 조심'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조금 끼겠다.

10월 9일 (음 8월 18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서울, 부산, 대구, 광주, etc.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3:11 썰물 < 08:25, 여수 밀물 < 10:21 썰물 < 03:53

▲해돋이 06:33 ▲해질 18:06 ▲달돋이 19:15 ▲달질 08:5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추석 최대 후유증은 '빚살'

을 추석 가장 큰 고민은 '다이어트'.

네티즌 4명 중 1명이 추석 후유증으로 '늘어난 빚살'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는 해보다 길었던 추석연휴 기간 중 떡·과일·고기 등 명절 음식을 과식할 수밖에 없어 몸무게가 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쇼핑몰 G마켓(www.gmarket.co.kr)이 네티즌 1만1천983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가장 두려운 후유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늘어난 빚살'을 답한 네티즌이 전체 응답자의 25%(2천995명)를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성공 다이어트/비만과의 전쟁' 카페에서는 40여 명의 회원이 '다이어트 미션 8호'라는 주제로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준비운동~스트레칭~15분 순환운동~30분 유산소운동~마무리운동/스트레칭 순

서로 이어지며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한 카페 운영자는 "칼비점은 350kcal, 떡은 200~300kcal에 이를 정도로 칼로리가 높다"며 "추석 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가 다이어트 전도사'인 가수 겸 배우 옥주현도 한가위 비만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7가지 요가 동작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옥주현은 '소화를 촉진하는 보트-할 자세' '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 척추 트리스트'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에 돌입한 네티즌 '외계夫人'은 "명절 내내 송편보다 술을 더 마셨더니 바로 몸무게가 증가했다"며 "오늘부터 착실하게 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엠파스'(www.empas.com)가 추석 후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서 네티즌들은 빚살로 '직결'되는 떡갈비(36%)가 '추석 제사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은 ▲송편(16%) ▲동그랑땡(9%) ▲어적(6%) ▲토란탕(4%) 등의 순이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입소용 병·난방기' (Energy-saving heater) featuring a man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Advertisement for '빚살' '변비' (Debt and Constipation) with a '23원짜리' (23-won) offer.